

남녀 대학생의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목적과 태도*

Male/female college students' aims of English education and attitudes to English education for their future children

민하영** · 이진경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 대구가톨릭대학교 영어교육과

Min Ha-Yeoung · Lee Jin-Kyong

Dep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 · Dept. of English Education, Catholic Univ. of DaeGu

Abstract

The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urpose of and their attitude to English education for their future children (EEFFC). The subjects were 244 college students in Daegu/Keoungbok area, 120 males (49.2%) and 124 females (50.8%). The data were analyzed with χ^2 ,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using SPSS 12.1). Major findings include: (1)Female students are willing to give English education in their future children's earlier years, and they show more active attitude to EEFFC than male students. (2) The purpose of EEFFC is more deeply correlated to the attitude to EEFFC in the case of male students than female students. (3) Concludingly, the more the subjects think that English education is essential for their future children's successful social career, the more they show positive attitude to English education.

Key Words : college students, purpose of English education, attitude to English education for the future children

I. 서론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수업되기 시작한 첫 해가 1997년임을 고려해 볼 때, 2007년은 초등학교에서 정식 교과목으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2006)에서는 초등 영어 교육 학년을 현행 3학년에서 1학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전국 50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 시범활동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세계화, 국제화 정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등학교 3학년 영어 교육은 국제사회 공용어인 영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가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된 지

10 여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영어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조기 해외 유학 급증(1998년 212명에서 2005년도 8,148명으로 증가, 한국교육개발원, 2007)과 이와 연결된 장기분거 가족(기러기 가족)의 증가(김성숙, 2006; 김향희, 장운정, 2004), 그리고 해외 어학 연수 급증 및 전국 영어 마을 건립 증가 및 새 정부의 영어몰입교육(동아일보, 2008, 2, 7) 의지 표명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진학 및 취직, 승진 등에서 영어가 중요 판단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유아 대상 영어사설학원과 학습지 방문 교육 등 영어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 등이 나타나는 것 역시 또 다른 한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 등을 고려해 볼 때, 영어는 우리 사회 안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할 수 있다.

영어의 중요성과 함께 조기 영어 교육 및 학습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는 조기 해외 유학

* 이 연구는 2007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확장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Min, Ha-Yeoung
Tel: 053) 850-3545, Fax: 053) 850-3545
E-mail: hymin@cu.ac.kr

급증이나 영어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 및 초등학교 1학년 정규 과목으로 영어 교육 시행 계획 등에서 확인될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영어 교육의 저연령화 또는 조기화에 대한 학문적 찬반 논쟁은 여전히 계속(신동주, 2007; 우남희, 2002; 이명조, 1996; 전예화, 2003; 최진숙, 2007; 황혜신, 2005, 2007)되고 있으나 이러한 학문적 논쟁과 별도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과열되고 있다고 평가될 만큼 조기 영어 교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조기 영어 교육 효과에 대해 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성인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나 교사 모두 유아기 영어의 필요성을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이명조, 2005; 한유미, 이진화, 1997)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교육의 적절한 학습시기를 취학 전 만 5세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조, 2005).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성인 세대의 이러한 사회적 신념은 제 2언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46명의 중국인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미국에 이민 온 연령을 토대로 영어 사용 결과를 분석한 결과, 3-7세 사이에 미국에 온 집단은 원어민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세 이전에 제 2언어에 노출된 경우 원어민과 같은 제 2언어의 유창성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Johnson & Newport, 1989) 등 나이가 어릴수록 제 2언어를 더 잘 습득할 수 있음을 보고하는 연구결과들(Chomsky, 1972; Jin, 1998; Johnson & Newport, 1989; Lenneberg, 1967)에 의해 지지받고 있다. 한편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믿음은 Chomsky와 Lenneberg 등 결정적 시기 가설 등에 의해 강화되기도 한다. Chomsky는 언어습득기체인 LAD(Language acquisition device)를 통해 생득적으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다는 생성 문법이론을 주장하면서, 5-6세 시기가 가장 왕성하게 기능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6세 이전에 외국어에 노출시켜 주면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Lenneberg는 생리학적 근거를 토대로 결정적 시기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Lenneberg는 언어습득이 뇌성숙과 관련있다고 전제하면서, 뇌반구편중현상(lateralization)이 완성되는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인 2-12세 시기에 보다 풍부한 언어습득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생의 초기에 이루어지는 영어 환경 노출과 경험 그리고 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심리적으로 수용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과열을 우려할 만큼 확산되고 있는 영어 교육 현상이 현재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부모 세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10년 후 우리 사회의 자녀 영어 교육 역시 영어 교육의 주 구매층이라 할 수 있는 예

비 부모 세대에 의해 영향받을 것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때, 대표적인 예비 부모 세대군인 현재 대학생의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생각과 인식은 차세대 영어 교육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 영어 교육의 국가적 또는 사회적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예비 부모군으로 주요 부모교육 대상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학생(김정미, 2005)을 중심으로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인식을 목적과 태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미래 사회 영어 교육의 현상을 전망하고 예측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자녀 영어 교육과 관련한 예비 부모 및 부모 교육의 자료 구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지출이나 해외 어학 연수, 영어 마을 건립, 영어몰입 교육 등 영어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준비를 위한 정보 및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2006b)에서는 영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을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는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인과의 기초적 의사소통이나 외국 문화 이해 능력 신장을 실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어를 공부하는 초, 중등학생은 외국인과의 기초적 의사소통이나 외국 문화 이해 능력 신장이라는 내재적 동기보다 사회적 성공이라는 도구적 동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외국인과의 대화를 위해서'라는 응답은 30% 정도 나타난 반면 도구적 동기인 '좋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60% 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이라는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적(교육인적자원부, 2006b; 김경자, 1993)보다 사회적 성공의 도구적 동기가 영어 교육의 주요 목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성공이라는 도구적 동기가 영어 교육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영어 교육 목적의 도구적 동기에 대한 생각이 클수록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보다 적극적이며 강력해 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도구적 동기 목적과 부모의 영어 교육에 대한 태도 간 관계성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영어 교육의 목적과 태도에 관한 인식이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 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전통적 부양자 및 도구적 역할을 기대해 온 남자의 경우 아버지가 되었을 때, 사회적 성공이라는 도구적 동기에 보다 민감할 수 있다. 어머니 역시 자녀 양육에 보다 중추적이며 책임있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위한 도구적 동기 측면에서 자녀 영어 교육을 생각할 수 있다.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한 태도 역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기대할 수 있다.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국내

연구의 대부분이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송승민, 2005a; 이명조, 2005; 최진숙, 2007)라는 사실 외에 자녀의 양육 및 교육이 전통적 부모역할에서 어머니의 주요 역할로 평가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한 태도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서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자녀 영어 교육 목적의 도구적 동기나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태도를 부모의 성별과 연결시켜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모에 따른, 즉 성별에 따른 자녀 영어 교육 목적 및 태도 간 차이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한 목적은 태도와 유관한 관계를 보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인간의 행동이 목표나 목적에 의해 영향 받음을 고려해 볼 때,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한 도구적 동기에 대한 목적이 클수록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한 태도 역시 보다 강력하며 적극적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한 부모의 목적과 태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지지할 만한 경험적 연구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가 주로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김창호, 1997; 전예화, 2003)나 영어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송승민, 2005a; 이명조, 2005; 최진숙, 2007) 등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표적 예비 부모군(김정미, 2005; 전선영, 2001)이라 할 수 있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한 목적과 태도를 살펴보고, 자녀 영어 교육 목적과 태도 간 관계를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생의 자녀 영어 교육 태도에 대한 성별과 영어 교육 목적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성별과 영어 교육 목적이 지니는 설명력의 크기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성별과 영어 교육 목적 간에 나타나는 상대적 설명력은 ‘자녀의 영어 교육 태도에 관한 예비 부모 또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부모 통합형 또는 부/모 독립형 프로그램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초 정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목적과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목적과 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자녀 영어 교육 태도에 대한 성별과 영어 교육 목적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남녀 대학생의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목적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대구경북지역내 2개 대학 대학생 24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중 남학생 120(49.2%)명, 여학생 124(50.8%)명이었으며, 2학년 67(27.5%)명, 3학년 93(38.1%)명, 4학년 84(34.4%)명, 인문계열 69(28.3%)명, 사회계열 115(51.2%)명, 자연계열 47(19.3%)명, 기타 3(1.2%)명이었다.

2. 연구척도

질문지 조사를 위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1) 영어 교육 목적 척도

교육인적자원부(2006a), 김경자(1993), 송승민(2005a) 등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영어 교육 목적을 ‘학업성취를 위해, 고교진학이나 대학입시를 위해,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얻기 위해,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영화, 음악, 제품 구매 등 외국 문화와의 교류를 위해’의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영어 교육의 목적을 묻는 6문항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2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사회적 성공(4문항)과 외국문화 소통(2문항) 요인의 전체 설명력은 70%였으며 각각은 47%와 2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6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의 신뢰도 분석결과,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외국문화 소통과 관련된 2개의 문항은 수정된 문항-전체간 상관관계가 낮을 뿐 아니라, 문항 제거 시 전체 신뢰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영어 교육 목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전체 설명변량의 70% 중 47%를 차지하면서 4문항간 내적 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가 .86으로 나타난 사회적 성공 요인만을 영어 교육의 목적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영어교육의 목적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사회적 성공에 관한 문항에 비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 등이 낮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영어교육의 목적에서

<표 1> 자녀 영어 교육 목적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명	문항	요인1	요인2	h2
사회적 성공	학업성취를 위해	.804	.124	.662
	고교진학이나 대학입시를 위해	.848	.009	.718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883	.121	.794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얻기 위해	.794	.271	.704
외국문화 소통	외국인과 기본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222	.756	.662
	영화, 음악, 제품 구매 등 외국문화 교류를 위해	.016	.821	.675
설명변량		47	23	
총 설명변량		70		

<표 2> 자녀 영어 교육 목적 문항에 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명명	문항	수정된 문항-전체 상관관계	문항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사회적 성공	학업성취를 위해	.625	.715
	고교진학이나 대학입시를 위해	.594	.719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693	.694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얻기 위해	.682	.694
외국 문화 소통	외국인과 기본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368	.777
	영화, 음악, 제품 구매 등 외국문화 교류를 위해	.227	.814

외국문화와의 소통이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 선행연구결과(교육인적자원부, 2006a; 송승민 2005a)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이라 판단된다.

4문항으로 이루어진 영어 교육 목적은 4-20의 응답범위를 가지며, 평균(표준편차)은 16.30(2.83)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성공을 위해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영어 교육 태도 척도

영어 교육 태도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어에 취미와 적성이 없어 보여도 일단 시키겠다', '영어 학습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 시키겠다', '영어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굳이 시키지 않겠다(역산)', '영어하는 것을 힘들어 하면 강요하지 않겠다'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해외 연수를 시키겠다', '기러기 가족이 되더라도 해외 유학을 시키겠다' 등의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그렇다', '정말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9문항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주성분 분석 및 Varimax 회전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이겐 값이 1이상인 3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3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는 9문항은 각 요인이 41.1% 20.5% 12.5%의 설명력 등 74.1%의 전체 설명력을 나타냈다. 한편 문항간 내적 합

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는 9문항 .82로 나타났으며 수정된 문항-전체 상관관계가 낮거나, 문항 제거 시 전체 신뢰도를 높이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범위는 9-45점이며, 평균(표준편차)은 28.11(6.22)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 교육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영어교육 수행의지 요인은 4-20의 응답범위를 가지며, 평균(표준편차)은 12.84(3.64)로 나타났다. 해외 어학 경험의지 요인은 3-15의 응답범위를 가지며, 평균(표준편차)은 8.03(2.64)으로 나타났다. 조기 영어 교육신념 요인은 2-10의 응답범위를 가지며, 평균(표준편차)은 7.23(1.97)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2007년 1학기에 대구경북 소재 2개 대학교 남녀 대학생 24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수월성을 위해 대학 2, 3, 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각 전공과목 수강자를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각 수업 담당교수의 허락을 구한 후, 수업이 끝난 시간에 연구보조자인 대학원생이 입실하여 결혼 의사와 결혼 후 자녀 출산 의사가 있다고 거수 표시한 남녀 대학생에게 배포되었다. 대학 1학년생은 대학 신입 첫학

<표 3> 자녀 영어 교육 태도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명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h ²
영어 교육 수행 의지	영어에 취미와 적성이 없어 보여도 일단 시키겠다	.901	-.033	.056	.886
	영어 학습에 큰 흥미를 보이지 않더라도 일단 시키겠다	.796	-.089	.106	.876
	영어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굳이 시키지 않겠다(역산)	.746	.449	.098	.749
	영어하는 것을 힘들어 하면 강요하지 않겠다(역산)	.742	.469	.068	.677
해외 어학 경험 의지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해외 연수를 시키겠다	.039	.813	.120	.475
	기러기 가족이 되더라도 해외 유학을 시키겠다	.046	.798	.333	.775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자녀와 함께 해외 여행을 자주 가겠다.	.125	.670	.105	.767
조기 영어 교육 신념	영어 교육은 어릴수록 효과적이다	.102	.164	.921	.816
	영어 학습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	.110	.255	.894	.653
설명변량		41.1	20.5	12.5	
총 설명변량		74.1			

기로 결혼 의사 및 출산 의사를 묻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대학 2, 3, 4학년과 달리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정식 교과목으로 학습한 세대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동시대 효과(cohort effect)를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배포된 질문지는 전공과목 개설 학과 사무실에서 일주일간 수합하도록 했으며 일주일 후 수거하였다. 수거된 자료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였으며, Window형 SPSS 프로그램의 χ^2 ,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해 유의수준 $\alpha < .05$ 에서 자료 분석하였다.

자녀 교육 시 가장 먼저 시킬 교육의 내용에 대해 남녀 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χ^2 (df=7)=26.67, $p < .001$). 그러나 한글보다 영어를 가장 먼저 시키겠다는 생각은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서 같게 나왔다. 한편 자녀 교육에서 가장 오랫동안 시킬 교육의 내용에 대해 남녀 대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남녀 대학생 모두 영어를 가장 오래도록 시키겠다는 응답이 월등히 많이 나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 자신의 자녀 영어 교육에 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영어 교육 목적과 영어 교육 태도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 분석 전에 남녀별 대학생의 자녀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영어 교육 목적에 관해서는 남녀 대학생 모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참조). 그러나 영어 교육 태도는 남녀 대학생간에 의미있는 차이($t = -3.68$, $p < .001$)를 나타냈다. 그중 영어 교육 수행의지($t = -3.64$, $p < .001$)와 해

<표 4> 남녀 대학생의 자녀 교육 내용에 대한 전반적 태도

(n=244)

구분	가장 먼저				가장 오래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		남자 대학생		여자 대학생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미술	3	2.5	9	7.3	4	3.3	1	.8
악기	18	15.0	34	27.6	8	6.7	14	11.3
체육	19	15.8	2	1.6	7	5.8	3	2.4
영어	41	34.2	42	34.1	70	58.3	88	71.0
한자	1	.8	5	4.1	1	.8	1	.8
한글	24	20.0	21	17.1	3	2.5		
수업	3	2.5	5	4.1	8	6.7	7	5.6
기타	11	9.1	6	4.1	19	15.9	10	8.1
합계	120	100.0	124	100.0	120	100.0	124	100.0
χ^2	26.67*** (df=7)				11.83 (df=7)			

*** $p < .001$

<표 5>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영어 교육 목적과 영어 교육 태도 차이

변인구분	영어 교육 목적	영어 교육 태도			
		영어 교육 수행의지	해외 어학 경험의지	조기 교육 의지	전체 (영어 교육 태도)
남학생(120)	16.24(2.99)	11.99(3.94)	7.42(2.69)	7.23(1.99)	26.64(6.33)
여학생(124)	16.35(2.69)	13.66(3.14)	8.62(2.45)	7.22(1.97)	29.52(5.79)
t값	-.28	-3.64***	-3.66***	.062	-3.68***

*** $p < .001$

<표 6> 대학생의 영어 교육 목적, 영어 교육 태도간 상관관계 (n=244)

변인구분		영어 교육 목적
영어 교육 태도	수행	.326***
	해외	.107
	조기	.267***
	전체(영어 교육 태도)	.322***

*** $p < .001$

의 어학 경험 의지($t = -3.66, p < .001$)에서는 남녀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영어 교육 수행의지와 해외 어학 경험의지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어 교육 태도 중, 조기 영어 교육의지에는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영어 교육 목적과 영어 교육 태도간 상관관계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녀 대학생의 영어 교육 목적은 영어 교육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r = .267, p < .001$). 이러한 정적 상관관계는 <표 7>에서와 같이 남녀 대학생간에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보다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영어 교육의 도구적 목적에 대한 생각이 높을수록 영어 교육 수행의지($r = .322, p < .001$) 및 조기영어 교육의지($r = .267, p < .001$)가 높게 나타났다. <표 7>에서와 같이 남학생($r = .386, p < .001$)의 경우 여학생($r = .266, p < .001$)에 비해 영어 교육 목적과 영어 교육 수행의지간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영어 교육 목적과 조기 영어 교육의지간 상관관계는 남녀간 유사한 정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편 <표 6>을 보면, 해외연수경험 의지와는 유의미한 관계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남녀별로 나누어 살펴 본 <표 7>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구문제 3) 대학생의 영어 교육 태도에 대한 성별과 영어 교육 목적의 상대적 설명력

<표 7>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영어 교육 목적과 영어 교육 태도간 상관관계

변인구분		남자 대학생(n=120)	여자 대학생(n=124)
		영어 교육 목적	영어 교육 목적
영어 교육 태도	수행	.386***	.266**
	해외	.117	.085
	조기	.277**	.257**
	전체 (영어 교육 태도)	.378***	.274**

** $p < .01$ *** $p < .001$

주1) 수행: 영어 교육 수행의지, 해외: 해외 어학 경험의지, 조기: 조기 영어 교육의지

<표 8> 대학생의 자녀 영어 교육 태도에 대한 성별과 영어 교육 목적의 중회귀분석

독립변인	영어 교육 태도		
	B	Std.Error	β
상수	12.19	2.43	
성별	2.91	.74	.24***
영어 교육 목적	.71	.13	.32***
R^2	.16		
F값	22.40(2,237)***		

*** $p < .001$

주1) 성별 남학생-0, 여학생-1로 더미변수화 하였음.

VIF=1이며 D-W 계수가 1.87로 다중공선성과 오차항간의 상관관계 문제가 나타나지 않아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영어 교육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별과 영어 교육의 목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 8>에서와 같이 대학생의 자녀 영어 교육 태도는 성별과 영어 교육의 도구적 목적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F = 22.40(2,237), R^2 = .16, p < .001$)으로 나타났으며, 성별($\beta = .24, p < .001$)보다 영어 교육의 도구적 목적($\beta = .32, p < .001$)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차세대 자녀 영어 교육 환경을 주도할 대표적 예비 부모인 남녀 대학생 244명을 대상으로 유아 영어 교육에 대한 목적과 태도간 관계를 대학생의 성별과 관련시켜 살펴본 이 연구는 연구문제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표적 예비 부모인 대학생의 자녀 영어 교육 목적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영어 교육 목적에 관한 남녀 대학생의 응답 평균 16점(응답범위 4점-20점)을 고려해 볼 때 남녀 대학생 모두, 자녀의 영어 교육이 사회적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는 도구적 동기의 의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영어 교육 목적을 사회적 성공의 도구적 동기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는 대학생의 인식은 유아기 자녀의 영어 교육의 목표를 장래 학업적 성취 및 직업인으로써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다고 보고한 송승민(2005a)의 연구결과 및 중고등학생의 영어 공부 목적이 사회적 성공에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한 교육인적자원부(2006a)의 자료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학생의 자녀 영어 교육 태도 중 영어 수행의지와 해외 어학 경험의지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녀에 대한 영어 교육 수행의지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자녀에 대한 해외 어학 경험의지는 남녀 대학생 모두 평균 7-8점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적 무리를 하거나 기러기 가족이 되더라도 해외 어학 경험을 시키겠다는 의지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결혼 후, 자녀의 영어 교육에 보다 강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비 부모 대학생 중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다 강한 영어 교육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자녀 양육과 교육의 주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는 사회적 역할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녀를 교육시키고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어머니의 역할로 인식(박영신, 김의철, 2004)할 뿐 아니라 자녀를 확대된 자기로 생각하며 자녀의 성취를 곧 자신의 성취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전형적 어머니 상(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을 고려해 볼 때, 예비 어머니군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할 여학생에게서 보다 강한 자녀 영어 교육 태도가 나타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 보여진다. 한편 자녀의 조기 영어교육 신념에 대한 생각은 남녀 차이 없이 모두 평균 7점 이상(점수범위 2점-10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대학생 모두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해 보

다 호의적이거나 수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비 부모인 대학생의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차세대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도가 과열이 우려되는 현재 상황만큼 유지되거나 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자녀 영어 교육 목적과 영어 교육 수행의지 및 조기 영어교육 신념 등 영어 교육 태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각각 살펴보면 자녀 영어 교육 목적과 영어 교육 태도 중 영어 교육 목적과 영어 수행의지는 예비 어머니군인 여학생($r=.266, p<.01$)에 비해 예비 아버지군인 남학생($r=.386, p<.001$)에게서 보다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취업 등 사회적 성공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높이 지각(김재원, 2003)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취업 등 사회적 성공에 유리한 도구나 수단이라는 생각이 보다 확실해지면 자녀에 대한 영어 교육태도가 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영어 교육 목적과 해외 어학 경험의지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 환경 체험과 관련해 조기유학을 다녀온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85%가 조기 유학을 간다면 말리겠다고 응답하고 있다는 사실(한국교육개발원, 2007)과 영어조기유학이 성공의 열쇠로 작용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연구결과(최진숙, 2007) 등을 고려해 볼 때, 해외 어학경험이 영어를 통한 사회적 성공에 비중 있게 영향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대학생들에게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셋째, 대학생의 자녀에 대한 영어 교육 태도는 성별에 따라 그리고 영어 교육 목적 수준에 따라 유의하게 설명되나, 성별보다 영어 교육 목적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해 보다 강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버지나 어머니라는 성별의 문제이기 보다, 사회적 성공을 위해 영어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강할 때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의 영어 교육에 대한 예비 부모 또는 부모 교육용 프로그램 구성 시, 부/모 독립형 보다 부모 통합형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 교육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구안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 외에 예비 부모 세대의 경우 가장 먼저 시킬 사교육 분야도 영어이며, 가장 오래 시킬 사교육 분야도 영어라는 태도를 확인했다. 이는 영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대학생인 예비 부모 세대 자신이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대학진학을 통해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대

학생의 경우 영어가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직접 체험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대학생 세대가 갖는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목적과 태도는 보다 경험적이며 현실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모가 지니는 신념이 자녀의 교육적 프로그램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Stipek, Milburn, Clements, & Daniels, 1992)을 고려해 볼 때, 대표적 예비 부모군이라 할 수 있는 남녀 대학생의 자녀 영어 교육에 대한 목적과 태도는 차세대 어린 세대가 받게 되는 영어 교육의 시기, 내용,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가늠하는 예측자가 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구대상의 지역적 한계 등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정식 교과목으로 영어가 채택된 지 10년이 지났고 새정부에서 영어몰입교육(영어공교육강화)이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의 결과는 차세대 자녀의 영어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참조되거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주제어 : 남녀대학생, 자녀 영어 교육 목적, 자녀 영어 교육 태도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a) 초등 영어교육 10년의 성과분석을 통한 초·중등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2006b) 영어 교육과정 개정시안 및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경자 (1993)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 국민학교 영어 교육과정의 일 개념체계. *한국초등교육*, 7, 71-91.
- 김성숙 (2006) 기러기야빠의 생활 변화와 적응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41-158.
- 김양희, 장은정 (2004) 장기 분거 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러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23.
- 김의철, 박영신 (2004) 청소년과 부모의 인간관계를 통해 본 신뢰의식: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103-137
- 김의철, 박영신, 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109-142.
- 김재원 (2003)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근로행태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6(1), 211-241.
- 김정미 (2005)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대한가정학회지*, 43(3), 233-249.
- 김창호 (1997) 영어의 조기 교육에 관한 연구. *언어학*, 5(2), 117-132.
- 송승민 (2005a) EFL환경과 ESL환경에서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 유형 분석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4), 387-412.
- 송승민 (2005b) 영어조기교육에 대한 한국과 미국 거주 어머니의 신념 비교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749-760.
- 신동주 (2007) 유아기 영어경험이 초등학교 1학년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1(2), 349-374.
- 영어몰입교육과 글로벌 콜센터 (2008. 2. 6) 동아일보. <http://www.donga.co.kr>
- 우남희 (2002) 영유아에 대한 조기 영어교육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이명조 (1995) 유치원에서의 영어 조기 교육.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 107-126.
- 이명조 (2005) 조기영어교육 효율성에 대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인식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3), 107-127.
- 전선영 (2001) 대학생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6(3), 73-95.
- 전예화 (2003) 영어교육 어릴수록 효과적인가?. *유아교육연구*, 23(3), 285-305.
- 최진숙 (2007) 초등단계에 영어조기 유학을 하고 귀국한 학생들의 학부모포커스그룹 인터뷰. *언어학*, 15(2), 77-98.
- 황혜신 (2005) 조기 영어 교육이 유아의 이중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3(4), 497-506.
- 황혜신 (2007) 유아의 조기영어교육과 이중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6(4), 699-710.
- 한국교육개발원 (2007) 2006학년도(2006년 3월-2007년 2월) 초·중고 유학생 출국 및 귀국 통계.
- 한유미, 이진화 (1997) 조기영어교육의 실태와 어머니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高鳳論集*, 20, 352-342.
- Chomsky, N (1972) *Language and mind*. NY: harcourt Brace & Jovanovich.
- Jin, K (1998) Age factor, L1 influence and the critical period hypothesis. *J. of the Applied Linguistics of Korea*, 14(1), 177-194.
- Johnson, SS, Newport, EL (1989) Critical period effects in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influence of maturational state on the acquisition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ognitive Psychology*, 21, 60-99.
- Lenneberg, EH (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Y: Wiley and Sons.
- Stipek, D, Milburn, S, Clements, D, Daniels, DH (1992) Parents' beliefs about appropriat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3, 293-310.

(2008. 1. 15 접수; 2008. 4. 11 채택)